

중년여성 기성복의 치수체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izing System for the Middle Aged Women's Clothing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교 수 최 혜 선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박사과정 이 경 미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

Prof. : Hei-Sun Choi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

Doctoral Course : Kyung-Mi Lee

〈목 차〉

I. 서 론	IV. 결론 및 제언
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II. 결과 및 고찰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suggest ways of improvement of the present sizing systems for the middle aged women's clothing. For this, a questionnaire survey for the aged group and calculating coverage rate of one garment item(suit) between the companies has been carried out.

The data was analyzed with use of SPSS package. The statistics were based on frequency, χ^2 -test, t-test and one-way ANOVA.

The results of the study was as follows:

1. In case of survey for middle aged women, the problems concerning the length and abdominal girth were found, that is to say, the former too long and the latter too tight.
2. The sizing systems between companies were very different in size classification and standard deviation of each sizes.
3. In calculating coverage rate of the 10 companies's sizing systems, coverage rate of the smallest size in each were the highest and those of the biggest were 0%. It

* 본 연구는 이화여대 생활과학연구비로 수행되었음.

means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present sizing systems are not enough to cover the various body form of the middle aged women, so that the more diverse sizing system is required for the better fitness of middle aged women's clothing.

I. 서론

1. 연구의 의의

과학기술의 발달과 생활방식이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구조는 의복의 소비패턴에도 영향을 미쳐 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제작하는 주문복보다는 스타일의 변화가 빠르고 종류가 다양하며, 가상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작되어진 기성복을 구입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근래에 이르러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이나 구미선진국과 같이 의복구입시 기성복에 의존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져 92%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¹⁾

기성복 산업에 있어서는 빠른 유행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소비자 집단의 치수와 디자인 등의 개인적 기호를 만족시켜야 하는데,²⁾ 특히 의복제작사 특정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대중의 체형 특징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치수등급을 관리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신체에 적합한 의복의 설계가 필요하다.³⁾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인체계측을 실시하고 인체크기와 형태특징을 수량화시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수인의 계측치 집계를 통한 치수선정과 치수분류, 인체와 의복의 적합관계, 인자분석, 표준체형과 신체비율의 수립, 그리고 이들 계측자료에 기초를 둔 유행과 여유분의 설정등이 인간공학적 배려하에서 적용되어야 한다.⁴⁾

그러나 시판되고 있는 기성복의 경우 범국민적인 표준체위조사에 의한 과학적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업체별로 시행착오를 거쳐 독자적으로 만든 치수체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규격과 치수분류를 보이고 있다.

한국공업규격에의 의류치수규격⁵⁾에도 엉덩이둘레가 기본부위에 포함되어있지 않을 뿐 아니라 기본부

위(신장, 가슴둘레, 허리둘레)도 치수간격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치수체계를 정하지 않아 기본부위간의 치수조합에 혼란을 가져올 소지를 안고 있다. 또한 신장이 증가함에 따라 가슴둘레, 허리둘레가 일률적으로 증가하게 되어있으며 체형에 따른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엉덩이둘레의 크고 작음에 따라 3가지 체형(Y체형, A체형, B체형)⁶⁾으로, 미국은 성장단계에 따라 4가지 체형(Junior, Misses, Women's, Half sizes)⁷⁾으로 분류하여 신장과 조합시켜 세분화된 치수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 외에 독일⁸⁾이나 호주⁹⁾ 국제표준화기구인 ISO¹⁰⁾에서도 체형분류를 기초로한 치수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오상략(1978)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성복에 대한 문제점으로 치수와 가격이 지적되었는데 연령에 따른 구체적인 불만요인으로는 24~35세는 디자인, 색상, 36~45세는 치수, 디자인, 색상, 46세이상은 특히 치수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¹⁾ 이는 최근 세일모직에서 조사, 발표한 한옷의 재활용실태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즉 10대~30대는 유행이 지나서 옷을 떼기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높은 반면에 40대는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¹²⁾ 이러한 치수에 연관된 적합성의 문제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그리고 젊은 여성에게서보다는 중년·노년층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연령집단을 세분화해 보면 40대와 50대 중년여성층에서 특히 가슴, 허리, 배, 상완 등의 둘레부위가 커지며 유두상이 길어지는 한편, 어깨선이 완만해지는 등¹³⁾의 신체변화 양상을 뚜렷이 알 수 있다. 92년도 표준체위조사¹⁴⁾ 자료를 보면 여성의 경우 체중은 31세 이후부터는 20대에 비해 2.0kg, 40세 이후는 5.5kg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체중증가현상은 생년기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 20대의 표준체

중에 비하면 모두 과다체중이나 비만체중에 해당되어 체중관리에 우려를 갖게 된다. 또한 허리둘레도 25세부터 굵어지기 시작하며 40세이후까지 계속 굵어졌으며 엉덩이둘레는 30세이후부터 결혼, 출산 등의 영향으로 급격히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변화된 신체로 인하여 많은 중년여성들이 의복구입시 특히 둘레부위 치수가 잘 맞지 않게 되며 신체의 프로포션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체에 적합하면서도 체형의 결점을 커버할 수 있는 의복 선택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신체적합정도를 높일 수 있는 치수체계 정립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초연구로써 현재 시판되고 있는 기성복에 대한 중년여성들의 실제 만족도를 설문을 통해 알아보고 유명업체의 치수규격과 커버울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중년여성의 기성복 착용시 적합도와 현재 기성복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치수내역의 문제점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여성 소비자들의 기성복 구입현황과 구입한 기성복의 치수에 대한 만족도 및 기성복 업체의 현행 치수체계를 알아봄으로써 기성복 착용시의 치수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한다.

둘째, 중년여성을 주된 소비층으로 하는 기성복 전문업체의 제품이 실제 중년여성들의 신체에 어느 정도 적합한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국민표준체위조사 보고서의 자료와 각 업체에서 사용하는 치수내역을 토대로 특정품목(부피스)에 대한 각 업체 제품들의 중년여성의 신체에 대한 커버울을 구해 업체간 비교를 실시하고, 이를 보다 적합도가 높은 중년여성대상 기성복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시한다.

II. 연구방법

중년여성들의 기성복 구입현황과 치수만족도를 알아보고 기성복 제조업체들에서 사용되는 치수내역

및 치수별 호칭을 조사하여 중년여성들의 현행 기성복의 치수적합성도를 파악하기 위한 본 연구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 설문조사

1) 조사내용

설문조사 내용은 조사대상자들의 인적 사항, 의복 구입현황 및 선택기준에 대한 문항, 체형변화에 관한 문항, 구입한 기성복의 치수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분류하여 작성하였다.

2) 자료수집 절차

본 설문조사는 1993년 11월과 12월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대상은 서울의 강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30대후반~50대의 중년여성으로 응답자의 연령별 비율과 인적사항 및 의복비 지출정도는 <표 1>, <표 2>와 같다.

<표 1> 응답자의 연령별 비율

단위 : n(%)

연령구분	응답자수
35-39세	50(14.8)
40-44세	103(30.4)
45-49세	135(39.8)
50-60세	51(15.0)
총 계	339(100.0)

인적사항(직업유부, 결혼여부, 출산여부)과 의복비 지출정도에 대해서는 연령별 집단간의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3) 통계처리

설문조사의 자료분석은 SPSS PC* program을 이용하여 응답빈도를 중심으로 기초통계분석을 하였으며 집단간의 유의성 검증에는 χ^2 -test, t-test, one way ANOVA를 사용하였다.

〈표 2〉 응답자의 인적사항 및 의복비 지출정도

단위 : %

연령 구분	직업유무		결혼여부		출산경험		의복비 지출정도(9~12월)				
	있다	없다	기혼	비혼	있다	없다	20万 미만	21~ 40万	41~ 70万	71~ 99万	100万 이상
35-39세	15.5	14.5	14.4	40.0	14.4	33.3	9.4	17.8	22.0	44.4	0.0
40-44세	21.4	34.0	30.2	40.0	30.3	33.3	31.7	31.9	26.8	22.2	25.0
45-49세	47.6	36.6	40.1	20.0	39.9	33.3	42.4	36.3	41.5	22.2	75.0
50-60세	15.5	14.9	15.3	0.0	100.0	0.0	16.5	39.6	9.8	11.1	0.0
row tot.	30.5	69.5	98.5	1.5	98.2	1.8	42.4	41.2	12.5	2.7	1.2
col.tot.	100.0		100.0		100.0		100.0				

2. 업체별 치수규격 조사

조사업체는 월간 멋 잡지(1992)의 한국패션브랜드 목록을 참고로 중년여성을 주된 소비층으로 하는 기성복 내수시장에서 연간 매출액이 10억이 넘는 10개 업체를 선정하였다. 조사된 각 업체의 치수규격간의 커버울 비교시에는 여성복의 다양한 복종 및 스타일에 따른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가장 신체에 적합한 정장용 슈트(하의가 스커트인 투피스)를 대표품목으로 설정하고 커버울 산출에 사용된 항목은 기성복 치수산출시 기준부위가 되는 신장과 엉덩이둘레의 치수를 사용하였다. 엉덩이둘레를 선택한 이유는 각 업체의 호칭별 치수분류시 가슴둘레는 기준치수나 증가 편차에 있어 업체간에 큰 차가 없는 반면 엉덩이둘레는 업체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커버울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즉, 기성복 업체 비교시 공통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표준체위조사 보고서 자료에서 30대 후반에서 60세에 이르는 541명의 신장과 엉덩이둘레의 표준편차를 구하여 이를 각 업체의 신장, 엉덩이둘레 치수에 가감해 주어 치수범위를 정한 후 각 치수범위에 속하는 인원수를 구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고려대 통계연구소¹⁵⁾에서 기성복의 규격설정에 사용한 방법을 참고로 하여 시행한 것이다.

Ⅲ. 결과 및 고찰

기성복의 치수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와 업체의 치수규격 사용현황을 알아보고 중년여성의 체형분류를 토대로 특정 생상품목의 커버울을 각 업체별로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성복에 대한 소비자 반응분석

중년여성들의 의복구입현황과 기성복 치수의 신체 적합성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의복 구입현황과 기준에 관한 분석

(1) 의복 구입현황

조사대상자의 94.1%가 의복구입시 기성복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3), 조사대상자를 연령집단별로 나누어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유의차가 인정되지 않았다.

〈표 3〉 의복 구입현황

	기성복	마춤복	기타	계
N(%)	319(94.1)	17(5.0)	3(0.9)	339(100.0)

기성복보다 마춤복을 선호하고 있는 17명은 그 이유로 기성복이 몸에 잘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64.7%), 그 다음으로는 기성복

의 디자인이 개성이 없기 때문에, 색상이나 무늬가 다양하지 않아서, 원단이 나빠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기성복치수의 신체 적합도에 관한 반응분석
(1) 자신의 신체치수에 대한 인식정도

기성복 구입시 응답자들이 선택하는 치수를 연령 집단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65/66 치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응답한 인원이 가장 많았으며 76/77, 54/55 치수에 해당하는 인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문항에 대해서도 연령별 집단간에 유의차가 인정되지 않았다.

알아보기 위하여 의복치수에 사용되는 부위중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와 드롭치를 신장과 각각 조합시켜 국민표준체위 조사보고서(1992) 자료의 30대 후반~50대여성들의 해당항목의 평균치 조합과 비교해 4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보았다. 그 결과 본 자료의 조사대상자들의 신장평균이 보고서 자료의 평균치에 비해 최소 4cm 이상이 크므로 어떠한 항목조합에 의한 집단 분류시에도 고른 분포를 얻을 수 없었다. 이것은 자료조사시 전체 중년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random sampling이 아니라 서울의 강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들을 선정하였으므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4> 기성복 구입시 선택치수

단위 : n(%)

선택치수 응답집단	43/44 82-90-150	54/55 85-92-155	65/66 88-92-160	76/77 91-94-165	88/89 94-106-170	98 97-108-175
35-39세	3(6.8)	11(25.0)	27(61.4)	1(2.3)	2(4.5)	-
40-44세	3(3.0)	18(18.2)	44(44.4)	26(26.3)	7(7.1)	1(1.0)
45-49세	1(0.8)	10(7.5)	47(35.3)	52(39.1)	21(15.8)	2(1.5)
50-60세	2(4.1)	6(12.2)	13(26.5)	13(26.5)	12(24.5)	3(6.1)

$\chi^2 = 55.77, df = 15, p < .001$

조사대상자 자신의 신체치수에 관한 인지정도를 알아본 문항에서는 85% 이상의 응답자들이 자신의 신장과 체중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는 모두 50% 이상의 응답자들이 알고 있었고 특히 허리둘레를 알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5>).

보다 고른 분포의 집단으로 나누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해당 항목의 평균치 조합을 사용하여 재분류한 결과, 신장-가슴둘레의 조합이 전 연령에 걸쳐 가장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어 이 두 항목의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이용한 치수범위를 사용해 조사대상자를 9개의 집단으로 나누었다(<표 6>, <표 7>). 단, 가슴둘레의 표준편차가 신장의 표준편차의 두 배 가까이 크게 나타난 점이 특이하다고 하겠으며 이는 중년여성들의 체형이 매우 다양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여도 큰 부리가 없을

<표 5> 자신의 신체치수에 관한 인지정도

N=339에 대한 비율(%)

신체부위	신 장	체 중	허리둘레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	89.7	89.1	78.5	68.1	59.6

조사대상자들이 기록한 그들의 신체치수와 설문조사자가 조사대상자를 직접 계측한 신체치수간에 큰 차가 있는 지를 t-test를 통하여 조사해 보았으나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조사대상자들이 기록한 그들의 신체치수에 따른 기성복 착용시의 적합정도를

<표 6> 조사대상자의 신장, 가슴둘레 항목의 평균 및 표준편차

단위 : cm

	mean(μ)	s.d.(σ)	$\mu - 0.5\sigma$	$\mu + 0.5\sigma$
가슴 둘레	89.72	6.32	86.56	92.88
신 장	159.89	3.33	158.23	161.56

것으로 사료된다.

이들 9개 집단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7〉 〈표 6〉의 치수범위에 따른 집단분류

단위 : cm (%)

신장 가슴둘레	158.23미만	158.23이상 161.56미만	161.56이상
86.56미만	G1(15.3)	G2(7.3)	G3(10.3)
86.56이상 92.88미만	G4(10.0)	G5(13.0)	G6(14.0)
92.88이상	G7(7.0)	G8(13.0)	G9(10.1)

(2) 기성복 치수의 적합성 정도에 관한 분석

전체 조사대상자의 기성복 착용시 일반적 착의상태를 둘레항목과 길이항목으로 나누어 본 결과는 〈표 8〉, 〈표 9〉와 같다. 둘레부위에서 가슴둘레, 팔둘레는 크다(약간 크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2.1%,

24.2%로 비교적 높았고 배둘레에서는 반대로 작다(약간 작다도 포함)라고 응답한 비율이 31.4%로 높게 나타나 특히 문제점이 많은 부위로 지적되었다.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역시 작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0.3%, 21.1%, 그리고 크다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 24.3%, 16.2%로 나타나 적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송민희(1982)¹⁶⁾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인데 즉, 우리나라 기성복 표준치수가 외국치수에 비해 호칭종류가 적고 기준자체가 신장, 가슴둘레로만 한정되어 있으며 체형분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치수의 다양성 부족과 부적합성에 대한 불만이 높으며 특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가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윤자(1983)¹⁷⁾의 연구에서도 30~50대 여성은 허리·가슴, 허리·엉덩이의 차이가 감소하여 유방과 둔부가 처지는 체형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기성복 착용시 부위별 문제점 분석 (둘레항목)

부 위	적합정도	크 다	약간 크다	적당하다	약간 작다	작 다	계(%)
가슴둘레		3.7	18.4	68.7	7.4	1.8	100.0
허리둘레		5.2	19.1	55.4	18.5	1.8	100.0
배둘레		2.5	12.1	54.0	28.9	2.5	100.0
엉덩이둘레		2.8	13.4	62.7	18.3	2.8	100.0
허벅지둘레		2.2	13.5	71.1	11.9	1.3	100.0
팔둘레		1.9	13.3	75.5	7.7	1.5	100.0

〈표 9〉 기성복 착용시 부위별 문제점 분석 (길이항목)

부 위	적합정도	크 다	약간 크다	적당하다	약간 작다	작 다	계(%)
소매길이		7.9	25.3	51.5	12.5	2.7	100.0
치마길이		5.2	20.7	59.0	10.5	4.6	100.0
바지길이		7.3	22.8	59.2	8.2	2.5	100.0
발위길이		2.3	12.5	71.1	10.9	3.2	100.0
블라우스 길이		4.6	20.7	66.6	6.8	1.2	100.0
사켓 길이		4.0	22.3	64.0	8.2	1.5	100.0
어깨 길이		4.0	21.8	64.1	8.6	1.5	100.0

길이항목에서는 밑위길이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길다(약간 길다 포함)라고 응답한 비율이 25%를 넘었고 소매길이의 경우에는 33.2%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길이항목중 치마길이와 바지길이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개인적인 기호나 유행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항목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길이항목이나 둘레항목 모두 인체의 어느 한 부위가 증가한다고 해서 일정한 비율로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치수체계가 신장의 증가분과 더불어 모든 부위가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일률적인 증가편차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중년여성의 고유한 신체특성이 전혀 고려되고 있

지 않으므로 같은 둘레부위라도 가슴둘레는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배둘레는 작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의 부적합성이 지적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다시 group별로 분류해 살펴보면 전체조사대상자의 반응분석과 비교해 볼 때 길이항목에서는 대체적으로 짧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10〉, 〈표 11〉, 〈표 12〉, 〈표 13〉).

우선 둘레항목을 살펴보면 가슴둘레가 평균치수미만이고 신장의 범위가 다른 G1, G2, G3는 집단의 특성상 가슴둘레가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허리둘레 역시 세 집단 모두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이에 반해 배둘레는 작

〈표 10〉 group분류에 따른 기성복 착용시 문제점 분석(둘레항목)

부위 집단	적합정도	크 나	약간 크나	적당하다	약간 작다	작 나	계(%)
가슴 둘레	G1	3(7.0)	13(30.2)	23(53.5)	1(2.3)	3(7.0)	43(100.0)
	G2		6(27.3)	14(63.6)	2(9.1)		22(100.0)
	G3		8(25.8)	22(71.0)	1(3.2)		31(100.0)
	G4	1(3.4)	7(24.2)	20(69.0)		1(3.4)	29(100.0)
허리 둘레	G1	2(4.7)	11(25.6)	23(53.5)	5(11.5)	2(4.7)	43(100.0)
	G2	2(9.1)	10(45.5)	9(40.9)	1(4.5)		22(100.0)
	G3	3(9.7)	6(19.4)	15(48.4)	7(22.5)		31(100.0)
	G4	1(3.6)	7(25.0)	14(50.0)	5(17.8)	1(3.6)	28(100.0)
배 둘레	G1		6(14.0)	29(67.4)	6(14.0)	2(4.6)	43(100.0)
	G2		3(15.0)	13(65.0)	4(20.0)		20(100.0)
	G3		7(22.6)	16(51.6)	8(25.8)		31(100.0)
	G4		4(14.3)	16(57.2)	6(21.4)	2(7.1)	28(100.0)
영덩이 둘레	G1	1(2.3)	5(11.6)	30(69.8)	5(11.6)	2(4.7)	43(100.0)
	G2	1(4.5)	6(27.4)	12(54.5)	2(9.1)	1(4.5)	22(100.0)
	G3		2(6.5)	23(74.1)	6(19.4)		31(100.0)
	G4		3(11.1)	16(59.3)	6(22.2)	2(7.4)	27(100.0)
허벅지 둘레	G1		6(14.3)	30(71.4)	5(11.9)	1(2.4)	42(100.0)
	G2	2(9.5)	4(19.0)	14(66.7)	1(4.8)		21(100.0)
	G3		4(12.9)	22(71.0)	5(16.1)		31(100.0)
	G4		2(7.4)	21(77.8)	4(14.8)		27(100.0)
팔 둘레	G1	1(2.3)	9(20.9)	27(62.8)	5(11.7)	1(2.3)	43(100.0)
	G2	1(5.0)	4(20.0)	15(75.0)			20(100.0)
	G3		2(6.7)	25(83.3)	2(6.7)	1(3.3)	30(100.0)
	G4		5(17.2)	18(62.2)	5(17.2)	1(3.4)	29(100.0)

〈표 11〉 group분류에 따른 기성복 착용시 문제점 분석(둘레항목)

부위 집단		적합정도	크 다	약간 크다	적당하다	약간 작다	작 다	계(%)
가슴 둘레	G5		1(2.6)	7(20.5)	27(69.2)	3(7.7)		39(100.0)
	G6		1(2.4)	8(19.0)	31(73.8)	2(4.8)		42(100.0)
	G7		1(6.3)		14(87.4)	1(6.3)		16(100.0)
	G8		1(2.7)	2(5.4)	29(78.4)	4(10.8)	1(2.7)	37(100.0)
	G9		1(3.3)		23(76.7)	6(20.0)		30(100.0)
허리 둘레	G5		2(5.2)	6(15.8)	22(57.9)	8(21.1)		38(100.0)
	G6		1(2.4)	6(14.3)	28(66.6)	6(14.3)	1(2.4)	42(100.0)
	G7		1(6.3)	1(6.3)	11(68.6)	3(18.8)		16(100.0)
	G8		1(2.6)	6(15.8)	22(57.9)	8(21.1)	1(2.6)	38(100.0)
	G9		1(3.3)	2(6.7)	19(63.3)	8(26.7)		30(100.0)
배 둘레	G5		2(5.4)	4(10.8)	20(54.1)	11(29.7)		37(100.0)
	G6		2(4.8)	6(14.2)	22(52.4)	10(23.8)	2(4.8)	42(100.0)
	G7				12(70.6)	5(29.4)		17(100.0)
	G8		1(2.7)	3(7.9)	17(44.7)	17(44.7)		38(100.0)
	G9		1(3.3)	3(10.0)	13(43.4)	12(40.0)	1(3.3)	30(100.0)
영녕이 둘레	G5		3(7.9)	6(15.8)	24(63.2)	4(10.5)	1(2.6)	38(100.0)
	G6		1(2.4)	7(16.7)	24(57.1)	9(21.4)	1(2.4)	42(100.0)
	G7				11(64.7)	6(35.3)		17(100.0)
	G8		1(2.7)	2(5.4)	25(67.6)	8(21.6)	1(2.7)	37(100.0)
	G9			5(16.7)	19(63.3)	5(16.7)	1(3.3)	30(100.0)
허벅지 둘레	G5		2(5.3)	5(13.1)	28(73.7)	2(5.3)	1(2.6)	38(100.0)
	G6			7(16.7)	29(69.0)	6(14.3)		42(100.0)
	G7			1(5.9)	13(76.5)	3(17.6)		17(100.0)
	G8		1(2.7)	3(8.1)	25(67.6)	7(18.9)	1(2.7)	37(100.0)
	G9			5(17.3)	21(72.4)	2(6.9)	1(3.4)	29(100.0)
팔 둘레	G5		1(2.6)	7(17.9)	28(71.8)	2(5.1)	1(2.6)	39(100.0)
	G6			1(2.4)	39(92.9)	2(4.8)		42(100.0)
	G7			1(5.9)	13(76.5)	2(11.8)	1(5.9)	17(100.0)
	G8		1(2.7)	9(24.3)	26(70.3)	1(2.7)		37(100.0)
	G9			1(3.3)	24(80.0)	5(16.7)		30(100.0)

〈표 12〉 group분류에 따른 기성복 착용시 문제점 분석(길이항목)

부위 집단	적합정도	크 다	약간 크다	적당하다	약간 작다	작 다	계(%)
소매 길이	G1	5(11.4)	13(29.5)	24(54.5)	1(2.3)	1(2.3)	44(100.0)
	G2		5(22.7)	13(59.1)	4(18.2)		22(100.0)
	G3	1(3.2)	4(12.9)	18(58.1)	7(22.6)	1(3.2)	31(100.0)
	G4	4(13.8)	15(51.8)	7(24.1)	3(10.3)		29(100.0)
$\chi^2=63.5, df=32, P<.001$							
치마 길이	G1	3(7.0)	12(27.9)	24(55.7)	2(4.7)	2(4.7)	43(100.0)
	G2		1(4.5)	18(81.8)	2(9.2)	1(4.5)	22(100.0)
	G3	1(3.2)	2(6.5)	19(61.3)	5(16.1)	4(12.9)	31(100.0)
	G4	3(10.3)	18(62.2)	7(24.1)	1(3.4)		29(100.0)
$\chi^2=87.9, df=32, P<.0001$							
바지 길이	G1	6(13.6)	13(29.6)	22(50.0)	2(4.5)	1(2.3)	44(100.0)
	G2		3(15.0)	15(75.0)	2(10.0)		20(100.0)
	G3	1(3.2)	6(19.3)	18(58.1)	3(9.7)	3(9.7)	31(100.0)
	G4	3(10.3)	16(55.2)	10(34.5)			29(100.0)
$\chi^2=89.4, df=32, P<.0001$							
발위 길이	G1		10(24.4)	30(73.2)		1(2.4)	41(100.0)
	G2	1(4.5)	4(18.2)	13(59.1)	4(18.2)		22(100.0)
	G3		3(10.0)	21(70.0)	5(16.7)	1(3.3)	30(100.0)
	G4	1(3.4)	2(6.9)	25(86.3)	1(3.4)		29(100.0)
$\chi^2=60.7, df=32, P<.01$							
블라우스 길이	G1		17(39.6)	25(58.1)		1(2.3)	43(100.0)
	G2	2(9.1)	4(18.2)	15(68.2)	1(4.5)		22(100.0)
	G3	1(3.3)	1(3.3)	25(83.4)	2(6.7)	1(3.3)	30(100.0)
	G4	2(6.9)	16(55.2)	11(37.9)			29(100.0)
$\chi^2=87.0, df=32, P<.0001$							
자켓 길이	G1	2(4.7)	13(30.2)	26(60.5)	1(2.3)	1(2.3)	43(100.0)
	G2		5(22.7)	16(72.7)	1(4.6)		22(100.0)
	G3	1(3.2)	2(6.5)	24(77.4)	3(9.7)	1(3.2)	31(100.0)
	G4	3(10.3)	14(48.3)	12(41.4)			29(100.0)
$\chi^2=64.6, df=32, P<.001$							
어깨 길이	G1		13(29.5)	27(61.5)	2(4.5)	2(4.5)	44(100.0)
	G2	1(4.5)	10(45.5)	10(45.5)	1(4.5)		22(100.0)
	G3	1(3.2)	4(12.9)	25(80.7)	1(3.2)		31(100.0)
	G4	4(13.8)	10(34.5)	14(48.3)	1(3.4)		29(100.0)
$\chi^2=71.7, df=32, P<.0001$							

〈표 13〉 group분류에 따른 기성복 착용시 문제점 분석(길이항목)

부위 집단	적합정도	크 다	약간 크다	적당하다	약간 작다	작 다	계(%)
소매 길이	G5	5(13.2)	9(23.7)	21(55.3)	3(7.8)		38(100.0)
	G6	3(7.1)	3(7.1)	21(50.0)	12(28.7)	3(7.1)	42(100.0)
	G7	4(22.2)	5(27.8)	8(44.4)	1(5.6)		18(100.0)
	G8	1(2.6)	13(34.2)	21(55.3)	3(7.9)		38(100.0)
	G9	1(3.3)	4(13.3)	18(60.0)	5(16.7)	2(6.7)	30(100.0)
$\chi^2=63.5, df=32, P<.001$							
치마 길이	G5	1(2.6)	8(20.5)	26(66.7)	2(5.1)	2(5.1)	39(100.0)
	G6	1(2.4)	3(7.1)	29(69.0)	8(19.0)	1(2.4)	42(100.0)
	G7	1(22.2)	5(27.8)	6(33.3)	3(16.7)		18(100.0)
	G8	1(2.7)	8(21.6)	23(62.2)	4(10.8)	1(2.7)	37(100.0)
	G9	1(3.1)		20(69.0)	5(17.3)	3(10.3)	29(100.0)
$\chi^2=87.9, df=32, P<.0001$							
바지 길이	G5	1(2.6)	7(18.4)	28(73.8)	1(2.6)	1(2.6)	38(100.0)
	G6	1(2.4)	7(16.7)	28(66.6)	4(9.5)	2(4.8)	42(100.0)
	G7	6(37.5)	6(37.5)	4(25.0)			16(100.0)
	G8	1(2.9)	7(20.6)	23(67.6)	3(8.9)		34(100.0)
	G9	1(3.3)	1(3.3)	19(63.3)	8(26.8)	1(3.3)	30(100.0)
$\chi^2=89.4, df=32, P<.0001$							
반위 길이	G5		6(18.2)	25(75.8)	2(6.0)		33(100.0)
	G6		2(4.8)	30(73.2)	4(9.8)	5(12.2)	41(100.0)
	G7	1(5.9)	4(23.5)	12(70.5)			17(100.0)
	G8	2(5.9)	2(5.9)	22(64.7)	7(20.6)	1(2.9)	34(100.0)
	G9		1(3.3)	19(63.3)	9(30.1)	1(3.3)	30(100.0)
$\chi^2=60.7, df=32, P<.01$							
블라 우스 길이	G5	4(10.3)	7(17.9)	27(69.2)	1(2.6)		39(100.0)
	G6	1(2.4)	5(11.9)	31(73.8)	5(11.9)		42(100.0)
	G7	2(11.8)	5(29.4)	9(52.9)	1(5.9)		17(100.0)
	G8	1(2.7)	4(10.8)	31(83.8)	1(2.7)		37(100.0)
	G9		1(3.3)	20(66.7)	7(23.3)	2(6.7)	30(100.0)
$\chi^2=87.0, df=32, P<.0001$							
샷벳 길이	G5	1(2.6)	10(25.6)	27(69.2)	1(2.6)		39(100.0)
	G6	2(4.8)	4(9.5)	30(71.4)	5(11.9)	1(2.4)	42(100.0)
	G7	1(5.3)	9(47.3)	8(42.1)	1(5.3)		19(100.0)
	G8	1(2.7)	4(10.5)	29(76.3)	4(10.5)		38(100.0)
	G9		2(6.7)	19(63.3)	7(23.3)	2(6.7)	30(100.0)
$\chi^2=61.6, df=32, P<.001$							
어깨 길이	G5	2(5.1)	12(30.8)	23(59.0)	2(5.1)		39(100.0)
	G6	2(4.8)	7(16.7)	28(66.7)	5(11.8)		42(100.0)
	G7		3(17.6)	13(76.5)	1(5.9)		17(100.0)
	G8	1(2.7)	2(5.1)	30(81.1)	4(10.8)		37(100.0)
	G9		2(6.7)	17(56.6)	8(26.7)	3(10.0)	30(100.0)
$\chi^2=71.7, df=32, P<.0001$							

다고 응답한 비율이 세 집단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팔둘레는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G1, G2에서 각각 23.1%, 25.0%로 높게 나타났다. 가슴둘레는 평균치수에 속하고 신장범위를 달리한 G4, G5, G6에서도 가슴둘레는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허리둘레에서는 특히 G4가 28.6%로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배둘레는 작다고 응답한 비율이 G1, G2, G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엉덩이둘레에서는 G4가 29.6%로 작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G5, G6는 크다고 응답한 비율과 작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슷하였다. G7, G8, G9는 가슴둘레가 평균치수보다 크고 신장의 범위를 달리한 집단으로 거의 모든 항목에서 작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배둘레에서는 G8, G9가 각각 40%가 넘는 비율로 작다고 응답하여 전집단에서 가장 문제점이 높은 항목으로 지적되었다. 집단간 차는 가슴둘레 항목에서만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길이항목에서는 거의 모든 집단이 전 항목에서 길다고 응답하였으며 모든 항목에서 집단차가 인정되었다. G1은 신장이 가장 작은 집단으로 모든 항목에서 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바지길기와 블라우스길기에서 길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1.0%, 45.4%로 높았다. 그러나 G3는 가장 신장이 큰 집단특성을 반영하여 소매길기에서 25.8%, 치마길기에서 29%가 짧다고 응답해 대조를 보였다. G4는 길다고 응답한 비율이 소매길기에서 65.5%, 치마길기에서 72.4%, 바지길기에서 65.5%, 블라우스길기에서 62.1%, 자켓길기에서는 58.6% 등으로 나타나 거의 모든 항목에서 적합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G6은 소매길기와 치마길기에서 짧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G7도 거의 모든 항목에서 50% 이상의 응답자들이 길다고 응답하여 G4와 비슷한 양상을 띠었다. 단, 결과해석시 치마길기는 본인의 의복선호도나 유행과 관련이 있는 항목으로 단순히 적합성의 문제로만 해석하는데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G9은 모든 항목에서 작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차별화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집단분류기준인 신장과 가슴둘레 모두 가장 큰 치수대에 속하고 있기 때

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어깨길기에서는 G2와 G4가 길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0%, 48.3%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G9만이 짧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6.7%로 높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가슴둘레의 증가분은 길이의 증가분에 비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중년여성의 경우에는 지방축적 등으로 체형 및 신체비례가 변하게 되므로 그들의 신체특성을 고려한 체형분류를 통하여 표준치수를 설정하는 것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하겠다.

(3) 수선경험 및 수선부위에 관한 분석

기성복 구입시 수선을 의뢰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60.3%로 수선을 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응답한 비율 39.8%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14>).

<표 14> 기성복 구입시 수선을 의뢰한 경험

수선경험 빈도	많다	가끔 있다	거의 없다	계
N	30	167	130	327
%	9.2	51.1	39.8	100.0

group분류에 따라 보면 G1, G2, G3의 경우 많은 둘레 항목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었듯이 수선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모두 5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G4에서는 수선경험이 거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타집단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간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이는 G4의 경우 가슴둘레는 평균치수이고 신장은 집단분류상 가장 작은 치수대에 속하고 있지만 이 집단의 신장, 가슴둘레 분류기준 모두가 92년도 국민표준체위조사자료의 중년여성의 평균신장인 155.6cm(표준편차 4.7cm), 가슴둘레 88.5cm(표준편차 6.7cm)에 거의 근사하고 기성복의 평균치수대인 55/66호에 속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15>에 조사대상자들이 응답한 기성복 구입시 가장 많이 수선을 하게 되는 부위와 수선내용을 품목별로 나타내었다. 치마와 바지에서는 모두 치마길

〈표 15〉 품목별 주요 수선부위와 수선내용

부위	품목	치마 (n=170)	바지 (n=149)	자켓 (n=68)	원피스 (n=44)	블라우스 (n=45)	코트 (n=40)
허리	줄임	28.8	12.8		9.0		
	늘림	10.6	6.7		6.8		
힙	줄임	1.2					
	늘림		2.7		9.2		
팔	줄임						
	늘림			2.8			2.5
옷길이	줄임	45.9	67.1	11.8	36.3		40.0
	늘림	12.9	8.1	1.5	9.2		5.0
소매길이	줄임			69.1	22.7	88.9	40.0
	늘림			7.4	4.5	8.9	2.5
밑위길이	줄임		0.6				
	늘림		0.6				
폭	줄임						
	늘림	0.6	1.4				
품	줄임						5.0
	늘림						
어깨너비	줄임			7.4	2.3	2.2	5.0
	늘림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이와 바지길이 및 허리를 줄인다는 응답율이 가장 높았다. 자켓, 원피스, 블라우스, 코트는 모두 소매 길이를 줄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원피스와 코트는 옷길이를 줄인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4) 기성복 치수체계에 대한 요구사항 분석

전체 조사대상자중 현재의 치수체계로도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간의 치수체계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호칭통일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57.8%, 치수분류의 세분화를 지적한 비율은 46.3%, 상·하의의 다양한 조합을 원하는 비율이 40.7%, 평균체형이 아닌 사람을 위한 폭 넓은 치수체계를 원하는 비율도 39.2%로 현재의 치수체계에 대해 소비자가 다양한 불만요소와 개선요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사항으로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치수의 불균형도 다수가 지적한 사항이었다.

2. 기성복 생산업체의 치수 사용현황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10개 업체들의 치수내역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업체명은 알파벳으로 표기하였다. 조사대상업체 10개사에서는 슈트, 자켓, 스커트, 바지, 원피스, 블라우스, 코트 등 모든 의류품목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되는 치수범위의 차이 뿐만 아니라 분류호칭에 있어서도 조사대상업체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들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체치수를 조사한 자료 가운데 의복제작시에 기본부위가 되는 부위인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의 치수를 각 업체의 호칭별로 정리하면 〈표 16〉과 같다. 호칭별 치수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 같은 55호칭대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가슴둘레의 치수범위가 89.0cm에서 100.3cm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증감분에 대한 편차가 각 업체마다

〈표 16〉 업체별 호칭에 따른 투피스용 기준신체치수

단위 : cm

업 체	호 칭	신 장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커 비 율
A	90-95-155	155	94.0	73.7	96.5	35.4
	95-100-160	160	99.0	78.7	101.6	9.4
	100-105-160	160	104.2	83.7	106.7	2.0
	105-110-165	165	109.2	88.8	111.8	0.0
B	95-100-160	160	100.3	88.0	103.0	5.9
	100-105-160	160	104.3	91.5	106.7	2.0
	105-110-160	160	108.0	95.0	110.5	0.5
	110-115-165	165	113.0	100.5	115.5	0.0
C	88-92-160	160	92.8	71.0	96.5	27.9
	93-97-160	160	97.8	76.2	101.6	9.4
	98-102-165	165	103.0	81.3	106.7	0.9
	103-107-165	165	108.0	96.4	111.8	0.0
D	95-100-160	160	99.0	73.0	102.0	9.0
	100-105-160	160	104.0	76.2	107.0	1.6
	105-110-165	165	109.0	82.0	112.0	0.0
	110-115-165	165	114.3	86.4	117.0	0.0
E	88-92-160	160	93.0	75.0	97.0	26.6
	93-97-160	160	98.0	80.0	102.0	9.0
	98-102-160	160	103.0	85.0	107.0	1.6
	103-107-160	160	108.0	90.0	112.0	0.1
F	88-92-160	160	92.7	76.2	97.8	23.3
	93-97-165	165	97.8	81.2	103.0	2.0
	98-102-170	170	103.0	86.2	108.0	0.0
G	95-100-160	160	99.0	81.3	101.7	9.4
	100-105-160	160	103.0	85.0	106.8	1.6
	105-110-165	165	106.8	89.0	111.8	0.0
	110-115-165	165	110.5	92.8	115.6	0.0
H	90-95-160	160	95.0	84.0	100.0	14.0
	95-100-160	160	99.0	88.0	104.0	4.6
	100-105-165	165	103.0	93.0	109.0	0.1
	105-115-165	165	107.0	99.0	115.0	0.0
I	85-90-155	155	89.0	78.0	97.0	32.9
	90-95-160	160	93.0	82.0	101.0	10.5
	95-100-160	160	97.0	86.0	105.0	3.1
	100-105-165	165	101.0	90.0	105.0	1.1
J	85-90-155	155	89.0	75.0	97.8	28.4
	90-95-160	160	95.3	80.0	101.2	10.3
	95-100-160	160	100.5	85.0	109.2	0.7
	100-105-165	165	105.5	89.9	114.1	0.0

달라 같은 호칭대라고 하더라도 어느 업체의 기성복을 구입하느냐에 따라 착용시 적합 정도가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중년여성들이 기성복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더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3. 기성복 업체간 커버울 비교

기성복 업체별 커버울 비교시 공통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표준체위조사 보고서 자료를 사용하였다. 커버울 산출방법은 고려대 통계연구소¹⁵⁾에서 기성복의 규격설정에 사용한 방법을 참고로 하였다. 즉, 국민표준체위조사보고서 자료의 30대 후반~50대 여성들 541명의 신장 및 엉덩이둘레의 편차를 구하여(4.72cm, 5.02cm) 각 업체의 신장 및 엉덩이둘레에 이 수치를 가감해 주어 치수범위를 정한후 각각의 치수범위에 몇 명이 속하는지를 구한 것이다. 이 인원수를 <표 17>에 해당인원으로 표시하였다. 이는 현재 기성복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치수체계가 기준치수에 일률적인 표준편차를 가감해 치수간격을 정하고 있는 방식을 이용한 것이다. 커버울은 기본형의 투피스(하의는 치마)에 대해서만 산출하였다. <표 17>은 각 업체별로 541명에 대해 전체적인 커버울을 구한 것이고 각 업체별 호칭에 따른 카바울은 <표 16>에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보면 각 업체의 커버울 비교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A업체의 커버울이 40%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모든 업체에서 호칭대별로 가장 높은 커버울을 보이고 있는 호칭대는 가장 작은 호수대였으며 호수대가 커질수록 커버울이 낮아지다가 가장 큰 호수대의 커버울은 두 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0.0%를 나타내었다. 이는 의복의 호수대가 커짐에 따라 획일적인 편차로 모든 치수가 증가하는 현 치수규격이 길이항목과 둘레항목에서 적절한 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 한가지 고려해 보아야 할 점은 모든 업체의 치수규격에서 제시되고 있는 신장과 엉덩이둘레의 최소치가 155cm, 엉덩이둘레가 89~92cm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국민표준체위조사 보고서의 30대 후반~50대 여성의 전체평균치와 일치하는 치수대이다. 그러나 이 연령대에 속하는 여성 541명중에서 개개인의 신장과 엉덩이둘레 치수가 보고서 자료의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수는 각각 272명, 279명으로 50%를 넘어하고 있다. 따라서 평균치에 표준편차의 증가분만 채택하고 있는 현재의 치수체계로는 나머지 50%에 달하는 소비자의 체형을 커버해 줄 수 없게 되어 적합성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의복제작시에는 위의 치수체계에 여유분이 더해지게 되고 제작시의 유행 등의 디자인 특성이 가미되므로 본 연구결과보다 커버울이 높아질 수도 있음을 밝혀둔다.

IV. 결론 및 제언

중년여성들을 주된 소비층으로 하는 기성복의 생산, 판매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년여성들을 판매대상으로 하는 기성복 업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치수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의복구입시 기성복을 구입

<표 17> 업체별 전체 커버울

업 체	해당인원	커버울(%)	업 체	해당인원	커버울(%)
A	254	46.9	F	137	25.3
B	46	8.5	G	60	11.0
C	207	38.2	H	102	18.8
D	58	10.7	I	258	47.6
E	203	37.5	J	214	39.5

하는 비율이 94.1%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기성복 착용시 특히 길이부위가 길이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구입후에 수선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수선빈도가 높은 부위와 수선내용은 치마, 바지, 원피스 등에서의 옷길 이와 자켓, 블라우스 등의 소매길이를 줄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서울 강남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년여성들에 제한되어있고 그들의 신체치수가 국민표준체위조사자료 보고서에 제시된 치수들의 평균치를 크게 웃돌고 있으므로 이 결과를 확대해석하는데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 기성복 업체는 각각 다른 치수규격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치수의 범위도 많은 차이를 드러내었다. 또한 커비율 비교시 가장 높은 비율이 40%를 넘지 못했으며 호수대가 커질수록 커비율이 낮아졌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기본치수를 정하고 이에 대한 증가편차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치수분류체계를 벗어나 정확한 인체계측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체형분류를 하고 길이항목과 둘레항목간의 치수조합을 다양하게 하여 소비자들의 실제체형에 근접할 수 있는 치수분류가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는 이를 각 기성복업체에서 공통치수규격으로 삼아서 기성복의 신체적합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의복을 구입할 때 일관된 기준하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적합성 높은 표준치수 설정에는 전국적인 계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며 학계, 기성복업체의 산학연계가 이루어져야만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정홍숙, 정삼호(1990), 「성인여성의 기성복 사이즈 만족도와 체형 및 연령 과의 관계」, 가정문화논총, Vol.4., 중앙대학교 가정문화연구소.
- 2) 나애란(1981), 「여자기성복의 선호도에 관한 설문적 연구」,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3) 대한가정학회편(1990), 「의류학」, 교문사.
- 4) 정옥림(1990), 「인체와 의복공학」, 수학사.
- 5) 한국공업규격 KS K 0051-1990 「여성복치수」.
- 6) JIS 成人女子衣料のサイズ(1985), 일본규격협회 발행.
- 7) U.S. Department of Commerce(1971), National Bureau of Standards, *Body Measurements for the Sizing of Women's Patterns and Apparel*,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8) The Standard Association of Australia Standard House, *Size Coding Scheme for Women's Clothing*, (AS 1344, 1975).
- 9) Dob Verband(1981), *Dob-Grossentabellen(Women's Outer Garment Size Chart)* Koln, Germany.
- 10) ISO TC133(1991), *Technical Report(Standard Sizing Systems for Clothes) ISO/TR10652*.
- 11) 오상락(1978), 「한국섬유패션 산업화 방안」, 서울대 경영논집, Vol. 12, No. 3.
- 12) 「섬유경제」, 1994년 7월 6일.
- 13) 원영옥(1981), 「체형과 의복구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 논문집.
- 14) 한국공업진흥청(1992), 「1992년도 국민표준체위조사 보고서」.
- 15) 고려대 통계연구소(1988), 「군집방법을 이용한 기성복의 규격설정」, 응용통계 Vol.3, No.1.
- 16) 공민희(1982), 「성인여자 기성복 치수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7) 남윤자(1983), 「실루엣에 의한 한국여성의 체형 분석」,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 정홍숙, 정삼호(1990), 「성인여성의 기성복 사이